

1곳만 더하면 '전국 석권'

대한경불회, 인천지방경찰청 창립... 14곳 중 13곳째

경찰 공무원 불자들의 '불교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있다.

지난 5월 21일 인천지방경찰청 불교회가 결성돼 전국 13곳 지방경찰청 불교회가 창립됐다. 특히 인천지방경찰청 불교회는 불교세가 미약한 이 지역에 신행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인천 강화서, 중부서, 서부서, 인천공항경찰대 불교회 등과 연계사업을 모색하고 있어 향후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천청 등 전국의 지방경찰청 불교회는 관내 경찰서 불교회 출범에 기폭제로 작용, '경불회 깃발'을 나부끼고 있다. 실제로 2001년 창립된 전남지방경찰청 불교회는 도내 12곳의 경찰서 불자 모임을 한꺼번에 결성해 한 원동력이 됐다. 이는 지난해 제주도를 뺀 전국 16곳 도·특별·광역시청에 불자회를 탄생시킨 한국공무원불자회연합회와 함께 경찰 공무원 불자들이 일

터'를 생활불교의 마당으로 넓히게 했다.

전남지방경찰청 불교회장 천승범 수사과장은 "지방청 불교회 창립은 그간 개별적으로 신행활동을 하던 불자 경찰관들을 한데 묶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동일 지역 내 산하 경찰서 불교회가 상호 유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경찰 공무원 불교회가 괄목한 성장을 보일 수 있던 것은 오는 6월 12일 창립 3주년 기념법회를 범어사에서 봉행하는 대한민국경찰청불교회이하 대한경불회의 노력에서 찾을 수 있다. 대한경불회는 지난 2001년 출범 이후,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불교회 창립과 경찰불자들의 신행활동을 돕는 프로그램 지원 등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2002년에 경찰청 내 중앙사무국을 개설하는 한편 경찰법요집 발간, 경찰

출신 상임포교사 25명의 미장립 경찰기관 법회 지원, 불교회별 등산 및 사찰참배 등의 소모임 활성화, 지역별 직장·직능불교단체와의 연계활동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대한경불회는 또 올 4월 전국 확대위원회를 갖고, 조직운영을 권역별 중심체제로 전환했다. 산하조직을 서울·경기·부산·경남 등 총 6개 권역별로 개편해 지부별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했다.

이같은 대한경불회의 괄목한 발전은 전국 산하 기관 불교회 결성 현황에서도 확인된다. 출범 당시 기존 5곳의 지방청 불교회가 13곳으로, 53곳의 단위 경찰서 불교회가 103곳으로 늘었다. 이 같은 증가는 현재 경찰청 산하 지방청, 경찰서, 부속기관 등 255곳 기관의 40.8%에 달하는 수치로, 총 46곳이나 늘었다.

대한경불회 김진홍 사무국장은 "지방청 불교회가 불자 모임 결성을 주도하면서 그

연도	지방경찰청 불교회 창립 현황
1989. 9. 8	경찰청불교회
1991. 10	충북지방경찰청 불교회
1992. 9. 6	서울지방경찰청 불교회
1997. 10	대구지방경찰청 불교회
1998. 7	경기지방경찰청 불교회
2001. 2. 7	경남지방경찰청 불교회
2001. 4. 28	대한민국경찰청 불교회
2001. 5	경북지방경찰청 불교회
2001. 6. 16	전남지방경찰청 불교회
2002. 3. 3	충남지방경찰청 불교회
2002. 3. 27	강원지방경찰청 불교회
2003. 6. 18	제주지방경찰청 불교회
2003. 9. 2	울산지방경찰청 불교회
2004. 5. 21	인천지방경찰청 불교회

미장립 : 전북지방경찰청-지부장 임명, 불교회 창립을 위한 준비 중

동안 창립을 주저하던 단위 기관 경찰서 불자들이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이 경찰청불교회 성장배경이었다"며 "앞으로 미장립 기관의 불교회 창립을 위해 기존 직장신행단체와 연계, 범종단 차원의 경승위원 위촉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감사원 불자회

'바른 감사, 바른 나라.'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가에 봉사하고, 공직 사회의 기강을 불어넣는 우리 감사원 공무원들의 사명감과 청렴성을 표현할 말합니다. 그럼 감사원 불자들은 어떻게? 마찬가지로 공명정대하게 일과 신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감사원 불자회가 창립된 지 만 5년이 됐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5월에 강화도 전등사와 석모도 보문사 등을 돌아오는 기념

서 불자회가 직장단위로 자연발생적으로 태동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였습니다. 물론 감사원에 근무하기 전부터 신심을 가진 분도 있었겠지만, 대다수는 막연한 관심에서 적극적인 참여자가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감사원의 인적구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대거 채용됐습니다. 우리 감사원 불자회가 초창기에는 자발적이고 자연발생적인 요소가 많았다고 보면, 앞으로는 어느 정도 조직과 활동영역



▶ 감사원 불자회원들이 지난 2003년 6월 경주 황룡사에서 열린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제4차 수계법회에서 좌선을 하고 있다.

일도 신행도 언제나 '공명정대' 자부

"젊은 직원 늘어 법당도 젊어졌어요"

순례법회를 개최했습니다. 초창기 때의 발심을 되새기고, 참다운 불자로 살기위해 소중한 시간을 가졌지요.

참, 불자님들께서 감사원 공무원들은 어떤 생활을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기회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직원들은 사무실에 있는 시간보다 출장을 가서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야말로 흔치 않은 직장인들입니다. 그러다보니 우스개 소리로 오랫동안 근무한 감사원 직구들은 오히려 매일 집으로 퇴근하는 것이 어색하다는 느낌까지 받기도 합니다. 또 상대방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하고, 대부분의 일이 상대방에 부담을 주는 일이라 조심스런 생활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 만큼 안으로 접어드는 생활이 자기 자신에게는 생활에서 가장 힘든 일입니다. 감사원에

을 통한 적극적인 포교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젊은 직원들을 동참하게 하기 위해 흥미를 유발하는 이벤트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신인 남일호 회장(공보관)을 중심으로 한 운영진이 다양한 법회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이번 5주년 창립기념 순례법회도 강화도의 지역문화재와 법회를 연계시키으로써 신입 직원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결론하지 않은 직원은 연인의 손을 잡고 자연스레 스님의 법문을 듣고, 아이들이 있는 직원은 가족 단위 역사공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알차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활과 함께하는 감사원 불자회. 앞서가는 직장불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병원 총무(재정금융과 부감사관)

관악 불심은 '불이회'로 통합입니다

서울대에 통합교수불자회가 창립됐다.

서울대학교 교수불자 모임 불이회는 5월 31일 관악캠퍼스 수의과대학 합동강의실에서 소광섭 초대회장, 회원 및 학생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신행활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출범된 서울대교수불자회는 지난 94년 수원캠퍼스에서 결성된 교수불자회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앞으로 21개 단과대 및 대학원에서 개별적인 신행을 하던 불자 교수들이 이곳을 구심점으로 활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대교수불자회에는 쟁쟁한 불자 교수들이 대거 참여했다. 인간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해 최근 조계종 제1회 불자대상을 수상한 황우석 교수(수의대)를 비롯해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된 박세일 교수(국제대학원), 인문대 종교학과 윤원철, 법대 호문혁, 의대 조보연 교수 등이 불자회에 가입했다.

서울대교수불자회는 우선 '신행'과 '연구 활동'에 상호 자극할 수 있도록 불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자로서의 정기적인 신행활동과 함께 회원들의 전공에 따른 불교연구를 적극 장려할 방

서울대 통합교수불자회 5월 31일 창립

회장에 소광섭 교수... '후견인 제도' 등 도입



▶ 서울대 교수불자 모임 불이회 회원들이 창립법회를 마치고 합장 인사하고 있다. 사진 뒷줄 왼쪽에서 네 번째가 소광섭 회장, 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가 우희중 총무.

침이다. 매일 한 차례 '불교철학과 학제적 접근'을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불교와 전공을 접목한 연구 활동을 벌이는 불자교수를 발굴해 교계는 물론 학계에 알려 불교연구영역의 외연을 넓힐 예정이다.

서울대교수불자회 소광섭 교수는 이날 창립법회에서 "그동안 불이회원들이 발표한 불교 관련 논문을 묶어 논문집을 발간하고, 교수불자연합회와의 연계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발적으로 활동해온 단과대·대학원별 불교학술회, 직원 불자모임과 합동법회도 추진된다. 먼저 재학생 불교모임의 활성화 방안으로, 불자교수와 학생을 1:1로 결연하는 '후견인' 제도를 도입한다. 이 같은 시도는 교수와 학생이 함께 불교 신행공동체를 일궈, 서울대에 '불교바람'을 조직적으로 일으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한편 이날 창립법회에서는 화계사 국제선원장 현각 스님의 '진정한 종교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특강도 진행됐다.

김철우 기자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우리절 정기기도·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 산 동 선 회 법 회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엔 불자들의 모든 바람을 한번 멋지게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절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선망조상 영가님들을 천도하는 역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천도재 기도도량입니다.

주[대비주 = 신묘장구대다라니]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지장경을 읽읍시다

우리절에서는 목요대비주처럼 매주 수요일마다 봉행하며 동봉스님이 사언절로 읊긴 <<지장경>> 전체를 독송합니다. 물론 참석하신 분들은 부처님전에 낱말이 축원을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불자님들께는 동봉스님이 번역하고 편집한 <<일원곡>> 제10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